최진석의 횡설종설

너 자신을 알라

여기저기서 먼저 가버린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만 하는 부모들을 안타까워하는 말들이 들린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자식들, 가족들을 보는 눈높이가 달라졌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래, 무겁게 가라앉아 있을 수만은 없어서 둘째 아들을 데리고 북한산에 올랐다. 무거운 마음을 이겨내고 다시 추스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각성에서다.

아무 말 없이 아들은 앞서 가 버렸고, 나는 그저 조금씩 높이를 올리며 걸었다. 산모퉁이 저 쪽으로 보이는 계곡에 너 댓 명의 장년 남성들이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다가 산에 가려 이내 사라졌다. 모퉁이를 다 돌고 나니 그 사내들이 다시 나타났다.

외양에서 풍기는 것만으로도 제법 배우고, 또 제법 그럴싸한 직업을 가진 품새다. 그 사내들은 난간 저쪽에서 나누던 말을 아직 끝내지 못했나보다. 그들의 말이 들렸다. "그러니까, 어려울 것도 없이 규정만 지켰으면 되었다니까!" "수많은 규정 가운데 몇 개만 지켰어도 그렇게까지 되었겠어?" 이들은 매우 화나 보였고, 또 진실로 안타까워하는 것 같았다.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어떤 사람의 아이큐가 130이라면,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아이큐가 13으로 떨어지고,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아이큐가 1억3000정도로 상승한다는 생각을 평소 가지고 있었는데, 내 아이큐도 아주 급하게 상승하고 있었다. 저들 스스로는 왜 난간을 넘어서 계곡으로 가면 안 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까?

그 규정을 써 놓은 팻말이 북한산 계곡 옆 난간에는 수도 없이 붙어 있다. 자신은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규정을 지키지 않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도 덩달아 분열되고 있었다. 무거운 마음으로 산을 오르던 나에게서 분열된 또 다른 나는 규정을 지키지도 않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하지 않았던 세월호 승무원 자리에 가 있었다.

불행을 야기시킨 시스템이나 구조보다는 분열되는 개인으로서의 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매우 감상적인 접근으로 보일 수 있겠다. 하지만, 크고 작은 규정을 어겨 보거나 가볍게 넘겨버린 적이 있던 나는 감상적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는 이런 느낌을 넘어서지 못하겠다.

세월호의 침몰은 이런 '나'들이 만든 비극이다. 우리의 현주소이고, 우리의 수준이고, 우리가 자초한 일이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민낯이나 자화상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구조'나 '시스템'을 말하는 큰 사람들 앞에서 너무 초라해지는 걸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직접 민주주의를 시행하던 아테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패배하고, 스파르타가 세운 참주정권에 의하여 운용된다. 민주주의 황금기는 막을 내리고 이제 정치적 혼란기로 접어들었다. 정치투쟁은 격렬해지고, 도덕적 해이가 극에 이르렀으며 이론으로 무장한 지식인들의 궤변이 횡행하였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크세노폰의 기억에 의하면 소크라테스는 다양한 질문들 마지막에 "국가라는 배는 누가 고쳐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한계에 이른 국가를 구조하려는 철학자의 간절한 희망이 읽혀진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평생 과제로 아테네인들의 혼이 최선의 상태가 되도록 돌보는 일을 하기로 한다.

그는 원래 델포이 신전에 적혀 있던 "너 자신을 알라!"라는 구절을 자신의 핵심 주장으로 만들었다. 소크라테스의 이 말은 사람 구실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야 비로소 훌륭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뜻, 즉 인간으로서의 훌륭함을 이성과 언어의 문제로 봐버리기도 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따로 있는 듯하다. 우리가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길은 논쟁이나 인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세계 안에서 주인으로 서 있어야 함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의미이다.

인식은 항상 자신을 대상과 분리시킨다. 이 분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비판과 지적과 한탄을 한 후, 할 일을 다 한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 하지만, 자신이 자신의 주인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지적에서 머물지 않고, 스스로 변화한다. 외부를 향해서 자기가 한 비판이 자기에게도 적용될 수 있게 할 줄 아는 자, 바로 자신을 아는 자이다. 자신을 또 다른 대상으로 놓고 분열된 상태에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의 덩어리로 놓고 바로 변화와 참여를 행하게 하는 자이다.

자신이 하는 일을 삶의 방편으로 치지 않고, 삶의 자세로 다룬다. 이런 자는 다른 사람들이 규정 어긴 것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규정을 지키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듯이 보이는 "너 자신을 알라!"는 자신이 국가의 주인으로 인식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를 통해 국가를 구할 수 있다고 믿은 소크라테스의 뜻을 한 번 다시 생각해 본다.

〈서강대 교수〉

종교칼럼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도록…

송 지 은
원불교 교무·광주원음방송 편성제작팀장

"추운데 그만 있고 엄마 아빠한테 와. 집에 가자."

진도 세월호 침몰 참사현장에서 어느 실종자 가족 부모가 쓴 편지 내용이다. 차디찬 바다 한가운데에서 돌아오지 못한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의 애끊는 심경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언젠가 방송에 출연한 초대손님이 이런 이야기를 전했다. 십 년 전 사고로 중학교 2학년이던 자녀를 잃었을 때 가슴이 찢어진다는 말, 애가 끊어진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통감했다고 한다. 그리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순간순간 그립고 보고 싶은 마음으로 평생 큰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게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경이라고 울먹이던 모습이 떠오른다.

그 어떤 것으로도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자녀를 기다리는 실종자 가족들과 참사 희생자 가족들의 슬픔과 분노와 고통을 표현할 길이 없다. 더욱이 꽃다운 나이에 자신의 꿈을 펴 보지도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 수많은 희생 영령들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미안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송두리째 잃은 슬픔에 가슴이 먹먹해진다.

가족들이 당한 큰 슬픔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함께 아파하고 고통을 나누려는 국민들의 마음이 진도 참사현장으로, 조문행렬로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진도 참사현장에 취재와 자원봉사를 위해 방문했을 때 분홍조끼를 입은 원불교 봉사자들이 '빨래 도와드립니다'라고 적힌 보드판을 들고 실종자가족들이 모여있는 진도실내체육관을 조심스럽게 들어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넋을 잃고 앉아있는 가족들, 앉아있을 기운조차 없어 누워있는 분들, 그러다가도 무슨 소식이 있나 하고 TV화면과 출입구를 뚫어져라 바라보는 가족들 앞에 봉사자들은 차마 말을 건넬 수 없어 글을 택했다.

'빨래 도와드립니다.'

기다림에 지쳐 자신의 몸을 추스르고 옷을 갈아입을 여력조차 없던 실종자가족들이 보드판의 글을 보고 내어준 빨래를 깨끗하게 세탁하고 볕에 말려 반듯하게 개어서 다시 가져다 드리는 일이다. 행여 가족들의 빨래가 분실되거나 바뀌는 일이 없도록 원불교 '봉공회' 회장은 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몇 차례 신신당부를 한다. 세월호 침몰참사가 일어난 다음날 새벽부터 진도 현장에 내려와 때로는 천막에서 잠을 자며 봉사에 여념이 없는 봉공회 회원들. 이들은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 실종자 가족이나 다른 봉사자들이 찾아 왔을 때 언제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부스를 떠날 수 없다고 말한다.

봉사와 아울러 팽목항과 원불교 진도교당에서는 실종된 분들이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하고 희생영령들의 해탈천도를 염원하는 기도식이 매일 세 차례씩 열리고 있다. 애써 담담한 표정으로 최대한 말을 아끼며 현장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기도식에 임하던 어느 봉공회 회원이 인터뷰과정에서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낸다. 자식을 키우는 같은 부모 입장에서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라고….

물질만능에 현혹된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가져온 뼈아픈 이번 참사를 통해 모두가 참회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시키는 일에 정성을 다해야겠다. 또한 온통 눈물로 얼룩진 대한민국이 큰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끝까지 감싸안고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도록 뜨거운 심장 박동소리를 끊임없이 들려주었으면 한다.

그 길만이 미처 떠날 준비도 없이 부모와 가족의 품을 떠나 황망한 죽음을 맞이한 영령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기 고

광주 수돗물, 바로 마셔도 괜찮습니다

강 영 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

KBS 프로그램 '생로병사의 비밀' '물' 편에서는 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인간의 출발점은 물이다. 인간이 태어나 노화로 죽는 것은 물을 잃어가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처럼 소중한 물을 어떤 방법으로 마시고 있는가. 사람이 음용하는 물에는 대체로 약 4가지 종류가 있다. 약수·석관수 등 바로 음용하는 지하수, 댐물을 정수하여 수도관을 통해 공급하는 수돗물, 지하수를 여과하는 등 물리적으로 처리해 병물 용기에 담아 시중 판매되는 먹는 샘물, 그리고 각 가정에서 정수기를 이용해 마시는 처리수인 정수기 물이 이에 해당한다.

환경부가 전문 조사기관인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2013년말 국민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수돗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55.2%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수돗물을 끓이지 않고 그대로 마신다는 비율은 5.3%로 2012년 조사결과인 미국 56%, 캐나다 47%, 일본 33%에 비하면 매우 낮다. 수돗물을 식수로 음용하지 않는 이유는 상수원 오염우려, 부정적 언론 보도, 막연한 불안감 등 심리적 요인이 대부분이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원수의 수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조사결과를 보면 원수의 수질이 결코 나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UN의 물개발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22개 국가 중 수질지수 순위 8위로 원수 수질이 상당히 좋은 편이다. 따라서 이제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다.

광주시 상수원은 상수원 활용에 있어 대단히 큰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다. 동복호, 주암호, 제2수원지, 제4수원지 총 4개의 광주 상수원은 산간계곡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류지역에 산업시설이나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전혀 없다. 그 결과 광주시 상수원수는 국내 상수원 수 중에서도 수질이 대단히 양호한 편에 속하고, 여기서 생산되는 수돗물 역시 그만큼 맑고 깨끗하다고 자부할 수 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만족하며 드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수돗물 바로마시기 종합계획'을 시작으로 각종 연계사업을 본격 추진 중에 있다.

그 중에서 광주시 수돗물은 세계적 수준의 수질검사 능력을 갖춘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인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에서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엄격한 수질검사가 이루어진다. 동복호 등 4개소 상수원수는 국가에서 정한 법정항목 39개보다 2배 이상 많은 98개 항목에 걸쳐 검사되고 있고, 4개 정수장에서 정수된 수돗물도 국가기준 항목 59개와 세계보건기구(WHO) 권장항목 155개 보다 더 많은 192개 항목에 걸쳐 검사된다.

가정에서 시민이 직접 음용하는 가정수도꼭지도 매월 시내 130개소를 대상으로 7개 항목에 대하여 이중, 삼중으로 감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주부들이 직접 수질검사에 참여하는 '수도꼭지 주부수질검사단'을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고, 금년에도 50명을 위촉하여 시내 전지역 5800세대를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주민에게 수돗물 수질을 직접 확인시킬 예정이다. 또한 광주시내 신·구 아파트 6개소에 실시간 자동수질측정기를 설치하여 전광판을 통해 우리 지역민이 간편하게 수돗물 수질을 알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리고 수돗물 음용률 향상을 위해 수돗물 안정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수도교실 운영하고 있고, 하계 방학기간에는 학생과 주부를 대상으로 수돗물 체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민이 마시는 물은 최대한 체계적으로 생산되고 안전하게 공급된 물이어야 한다. 광주시 수돗물의 수질은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만큼 바로 마셔도 된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막연한 불신으로 인해 불필요한 대체 음용수 등을 소비하는데 연 2조원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들이기보다는 수돗물에 대해 바로 알고, 안심하고 드시기를 적극 권한다. 수돗물을 신뢰하여 만족하며 즐겨 마신다면, 이 역시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구현의 한 모습이 아닐까.

社 說

'광주' 없이 치러지는 5·18 34주년 기념식

이틀 후면 이 땅에 민주화의 초석을 이룬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34주년을 맞게 된다. 하지만, 5·18은 34년이 다된 지금까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공식 사망자 수가 확인되지 않고, 발포 명령자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일부 보수 언론과 인터넷사이트는 "북한 특수군 개입", "북한 세력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왜곡하는가 하면 일각에선 5·18 당시 희생된 시신과 광주시민을 모독하는 패륜행위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 정부가 5·18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희생자와 부상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지 17년이 됐는데도 반민주적 작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5·18의 상징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지 않고, 기념식에서 제창도 배제해 반민주적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해 6월 여·야 국회의원 162명의 찬성으로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지만 보훈처는 노래가 종북(從北)성향이자 가사가 과격하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딴죽을 걸고 있다. 어처구니 없는 왜곡이 아닐 수 없다.

이에 5·18의 주체인 오월단체가 반발하면서 2010년과 지난해 정부 행사와는 별도로 기념식을 열었고, 이번 34주년에는 5·18 행사를 주관하는 기념행사위원회가 기념식 불참과 보훈처 예산 반납 등을 선언해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던 이들의 목숨과 피땀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60% 이상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전국의 각 자치단체 의회마저 찬성하는 기념곡 지정을 외면하는 것은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이다.

정부는 '역사 지우기'로 의심받을 수 있는 소모적인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자리로 돌려줘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민주정부라면 더더욱 그렇다.

막오른 지방선거 유권자 혁명 기대한다

6·4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15일부터 이틀간 전국 선거구에서 일제히 진행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은 22일부터 시작되지만 여당과 야당, 그리고 무소속 후보들은 등록과 동시에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려 선거운동 준비에 돌입했다. 사실상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가 시작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시·도 지사 및 교육감 각 17명, 시·군·구의장 226명, 시·도의회 의원 789명, 시·군·구의회 의원 2898명 등 모두 3952명을 선출하게 된다. 광주·전남에서는 시·도지사 및 교육감 각 2명, 기초단체장 27명, 광역의원 80명(비례 9명 포함), 기초의원 311명(비례 41명 포함)을 뽑는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세월호 참사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유례없는 '깜깜이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선정이 15일 오전에야 마무리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무원칙과 뒤집기가 난무하며 탈당 후 무소속 출마가 잇따르는 등 후폭풍도 거세다.

특히 선거가 코앞인데도 주민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어 걱정이다. 하지만 지방선거는 향후 4년간 지역의 살림살이를 이끌어 갈 동량들을 뽑는 주요 행사다. 후보들은 세월호 추모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가운데 차분하고 공정한 선거전을 치러야 한다. 비전 제시와 정책 대결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얘기다.

유권자들도 남은 기간 누가 지역 행정을 더 알차게 꾸려나갈 것인지 공약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경력·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등 후보자 정보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권리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세상의 모든 아침'

중저음이 매력적인 첼로는 흔히 사람의 목소리와 가장 흡사한 악기로 불린다. 깊은 음색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첼로의 전신은 비올라 다 감바(viola da gamba)다. 16~18세기 최고의 인기를 누렸지만 첼로의 등장과 함께 잊혀졌던 비올라 다 감바는 그 시절의 악기로 그 시절의 음악을 연주하는 '원전(原典)연주'가 인기를 모으면서 다시 각광받고 있다.

1991년에 제작된 프랑스 영화 '세상의 모든 아침'은 비올라 다 감바 연주를 만끽할 수 있는 작품이다.

영화는 루이 14세가 통치하던 17세기 중반을 배경으로 비올라 다 감바의 거장 쌩뜨 꼴롱브와 제자 마랭 마레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모든 것을 음악에 걸어버린 한 예술가의 고집스러운 삶이 아름다운 풍광과 음악 속에 펼쳐지는 영화는 깊은 감동을 준다. 영화 전편에 흐르는 음악은 비올라 다 감바 연주의 대가 조르디 사발이 들려준다.

모름지기 영화는 극장의 스크린으로 봐야 제맛이다. '세상의 모든 아침'을 대형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오는 24일 광주극장과 프랑스문화원이 함께 진행하는 '음악으로 통하다'가 그 행사다. 이번 기획에서는 프랑스의 피아노 듀오 '파 드 되'가 다양한 프랑스 영화에 영감을 준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는 콘서트도 진행한다.

'세상의 모든 아침'은 콩쿠르 상을 수상한 프랑스 국민 작가 파스칼 키냐르의 소설이 원작이다. 소설은 오랫동안 절판 상태였다 지난해 문학과 지성사에서 다시 출판됐다. "세상의 모든 아침은 다시 오지 않는다." "음악은 말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기 위해 그저 거기 있는 거라네. 그런 의미에서 음악은 반드시 인간의 것이라고 할 수 없지." 등 인상적인 대목들이 많다.

아마도 영화를 보고 나면 당신도 책이 읽고 싶어질 지 모르겠다. 무엇보다 당장 영화 속 음악이 담긴 OST 앨범을 사고 싶어질 거다.

마침 비올라 다 감바 연주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음악회도 열린다. 17일 광주 드맹아트홀에서 열리는 무지카글로리피카의 공연이다. 바로크 바이올리니스트 김진씨와 바로크 플루트, 첼발로 주자가 함께 무대에 오른다. 클래식 음악 팬들에게는 이래 저래 행복한 오월이다. /김미은 문화1부장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